DJ, 내일부터 영암서 사흘간 휴가

호남 민심 대결집 나서나

구여권 분발 촉구…김홍업·박지원 지원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15일부터 사흘간 영암에서 신년휴가를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15일 부산대에서 '21세기와 민족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강연장을 들어서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 내외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15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영암 등으로 휴가를 떠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동교동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매년 설 연휴 이후에 휴가를 떠났으며 올해는 영암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영암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해남 우수영과 진도 벽파진 등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구를 물리친 명량대첩 전적지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의 '상유십이 미신불사'(尙有十二微臣不死 :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미천한 신하가 죽지 않았다)를 거론하며 구여권 진영의 분발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최근 통합민주당 출범으로 호남 민심 결집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결집을 유도하는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호남을 방문, 호남에서부터 통합민주당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행보로 읽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이번 호남 방문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통합민주당 지도부에 각인시켜 차남인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전 비서실장의 공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비례대표 진출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전 실장은 14일 상경, 김 전 대통령의 호남 방문을 수행할 예정이며 김 전 대통령의 휴가지인 영암은 김홍업 의원의 지역구(무안·신안) 인근이다. 한 전 대표도 이 기간 동안 목포와 신안에 머문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의 전남 방문은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일단 김 전 대통령의 행보에는 한나라당에 맞서 호남 민심이 다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이 가장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역구 출마? 비례대표? 한화갑의 고민

목포 출마에 강한 의지…박지원씨와 대결엔 부담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는 13일 "김홍업 의원이 무안·신안에 있으니 내가 목포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목포 출마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목포·신안과 무안·신안에서 국회의원을 했다. 그런데 무안·신안에는 다른 사람(김홍업 의원)이 있다"며 "그러면 당연히 갈 데가 목포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목포에) 선점한 사람(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더라. 내 집을 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는 빈집 차지하고 있는데 왜 기웃거리느냐는 식이다"며 "집 앞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살림을 차리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와 관련, "14일 신안으로 가서 성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며 "통합민주당에 들어갈 것인지부터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내가 국회에 입성하려는 것은 호남인을 위하고 호남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며 "보도에 의하면 우리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 않다.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느냐에 대해 불편해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박지원 실장 등 동교동계 사이의 목포 경쟁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에 대해서 그는 "대선 이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했으니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뒤 "이제는 통합했으니 야당은 통합민주당이다"며 "지역정서를 대변한 정치세력으로 안착 돼 가는 과정이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당·민주당 지도부 '통합' 추인

18일 중앙선관위에 합당 등록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13일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통합민주당 창당을 위한 당 대 당 합당 합의를 추인했다.

이에 따라 양당의 합당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됐으며, 양당은 오는 17일 양당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합당 수임기구 합동 회의를 개최한 뒤 18일 중앙선관위에 합당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통합수임기구인 최고위 결의에 따라 법적으로 합당이 유효한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며 "오는 17일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새로운 통합민주당을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박상천 대표 주재로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양당 통합을 공식 추인하고 수임기구의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장성원 전 의원 등 일부에서 법적인 대표를 양보한 것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그 부분을 양보하지 않고서는 통합 자체가 결렬돼 지지층의 열망을 외면하는 결과가 되므로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며 고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경제 챙기겠다" 목포 예비후보 등록

4·9 총선 현장

○…박지원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한 데 이어 13일엔 목포시 선관위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밭갈이를 시작.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유권자 접촉을 본격화한 박 후보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꼼꼼히 챙기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며 "목포가 명실상부한 서남해안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

지병문, 귀일원서 '밥퍼 나눔' 봉사활동

○…지병문 의원 (광주 남구)이 14일 정신지체 요양원인 '귀일원'을 방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밥퍼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하는 등 바닥 민심 다지기에 주력.

지난 4년간 설과 추석 때마다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남구 관내 법정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온 지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확보하고, 또 그들이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

김영룡, 통합민주당 입당 "화순 출마"

○…고향인 화순에 출마의사를 밝힌 김영룡 전 국방부 차관이 13일 통합민주당에 입당,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

김 전 차관은 이날 입당 원서를 제출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당·정·청에서 일하며 얻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과 정치발전에 보탬이 되겠다"며 "경제전문가로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국민생활중심의 새 정치를 펼치겠다"고 18대 총선 출마 의지를 피력.

송두영 "북구 발전 공개 토론회 갖자"

○…송두영 광주 북갑 예비후보가 13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소속으로 북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

송 후보는 "북갑 선거구는 신당과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만 10명이 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곳"이라며 "오는 22일 민주신당 광주시당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능력 등을 후보별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

김재균, 주민자치센터 찾아 여론 수렴

○…김재균 광주 북을 예비후보는 13일 운암 2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노래 교실 수강생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여론을 수렴.

김 후보는 이날 "중산층과 서민들이 문화 생활을 즐길만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에 입성, 문화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힘을 쏟겠다"며 지지를 당부.

이승채 "의정활동 계획서 공개하자"

○…이승채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3일 정당의 후보 공천을 위한 여론 조사에 앞서 예비후보들간 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

이 후보는 "유권자들이 각 예비 후보의 정책이나 비전, 경력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 조사가 이뤄진다면 정확성과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유권자를 위해서라도 예비 후보들간 공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의정 활동 계획서를 공개하자"고 주장.

이영진 "亞문화도시 특별법 훼손 막겠다"

○…이영진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는 13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화.

이 후보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장을 지낸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훼손을 막고 광산에 문화·체육 복합 클러스터, 국제발명학교 등이 들어서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

정기남, 숭례문 복원 '국민성금 모금' 성토

○…정기남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3일 이명박 당선인의 숭례문 복원을 위한 국민성금 제안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화재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라고 비난.

정 후보는 "이번 화재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장 재직시절 숭례문 개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명박 당선인에게 있다"면서 "사과나 반성은커녕 국민 성금 모금 등을 언급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성토.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